2019.05.12 변호사 상담 내용

**1) 주희님 질문사항**

Q1) 리뷰 형식으로 상호가 노출 된 채로

우리 어플 내에서 몰카 탐지가 됐음을 공유했을 때

유저 혹은 개발자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Yes .

느낌을 적는게 아니라 (여기 카메라 있는 것 같아요~흑흑 불안해 ㅠ ) – 법적문제 X

사실을 적는다면(검사해보니 여기 몰카 있네요. 조심하세요) – 법적으로 문제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혹은 확장하여 영업방해 까지 문제삼을 수 있다.

또한 경쟁사가 몰카를 설치하고 검사해서 결과를 올린 후 에 스스로 회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확인이 아니라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그렇게 경찰이 잡아낸 경우에만 몰카 발생 표시를 하면 되겠다! 였습니다)

Q2) 만약 그렇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면서 몰카 발견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A 잘 모르겠다. (아래 내용 참고)

Q3).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불법 촬영은 어떤 루트로 가장 많이 적발되나요?

-> 실제로 “공공 화장실” 몰래 카메라의 심각성은 크지 않다.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경우(공공화장실)의 적발은 많지 않고

1) 지하철 , 계단 등에서 신체부위나 치맛속을 핸드폰으로 찍다가 (여성의 특정 부위 페티쉬) 현장 적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 연인사이 리벤지 포르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동의하고 찍은 경우는 동영상을 무기 삼아서 협박함 :

: 정준영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거의 대부분 정의구현(법적 처벌) 보다 고소 안 할 테니(취하 할테니) 유포하지 말아달라. 사회적 명예를 지켜달라 요구한다고 함. 승소를 한다 하여도 실제로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기 때문에.)

- 비동의 – 몰래 찍어놓고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 & 더한 영상 제작 요구(마지막으로 찍겠다.) & 돈 요구 ,( 성신여대 리벤지 포르노 – 이 경우 몰카 라기 보다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라고 범주를 넓히는 것이 맞ㅇ므)   
  
- 성매매 (원정녀, 조건만남, 성매매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몰래카메라 촬영

이 경우는 피해자들이 신고도 못하고 그저 삭제만 요청

3) 테크니션의 범죄(추가)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등의 A/S 를 맡겼을 때 (액정수리, 부품교체) 데이터를 다 복구해서 보는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장난으로 찍었다가 지웠던 영상 ,사진을 수리공들이 다 복구해서 가지고, 그 저장소를 잃어버리거나 자료를 지인들한테 뿌리면서 거기서 유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자, 경찰 내부에서도 증거물을 돌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심지어 검찰에서도 다 봅니다. (법원 공무원은 해당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 검찰에 계신분께 들은 말입니다 – “ 연예인 성매매 그거 나 다 봤어.” 우리는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니까 영상 사진 당연히 보지. 다만 그걸 유포하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니 유출 안되게 조심 하는 거고)

2) Idea / Develop

1. 10대, 20대, 30대 각 연령층이 느끼는 몰카에 대한 공포는 그 정도와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 우리가 공공장소 몰카 해결 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30대 여성은 공공장소 몰카(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심각성은 크지 않다. 성관계 장면이 유포되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더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고 합니다. 모텔에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남자친구가 몰래 찍는다거나. 혹은 남자친구랑 같이 찍었던 것들.. 같은것들이 유포되는게 걱정되는 점 이라네요. (주변 친구분들과 얘기시에도) 그런 것들이 주로 화제로 나오지 공공장소에서 특정 부위가 찍히는건 사실 크게 게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30대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므로 숙박 업소 등에서 촬영되어 유포되는 등의 피해는 공공장소 몰카와 다르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다.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 공공장소 몰카가 신경 안쓰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신경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얘기 입니다.) 공공장소 몰카는 조심하긴 하지만 찍혔는지 알 방법도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2. 정말로 오래 쓰이길 원한다면 수익구조, 사업 모델이 꼭 있어야한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실제로 유용하다 하더라도 BM이 없다면 그 서비스는 지속되기 힘들것이다.

> 숙박업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어플에서 몰카안심 업소 인증 같은걸 추가하면 어떨까, 그걸 어플과 연결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키면 어떨까 라고 말씀해주심.

>몰카가 적발된 업소를 밝혀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일 수 있다. 안좋은 지역만 늘어날테니까. 여성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더 키울 수 있다.

> 몰카 안심 업소인증 같은 프로세스를 널리 확산시켜서 안심 지역을 늘리는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긍정적인 확산을 말한다. 이 경우에 영업방해, 명예 훼손의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지역이 이만큼 많다” 보다 “안심할수 있는 지역이 조금이지만 이렇게 있다! 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3) 나의 질문

Q.) 가해자인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 ‘정의’ 로운 것이 맞는가? 죄책감은 없는가?

A ) 남편으로부터 죽기 직전까지 맞다가 반항하며 딱 한번 밀었는데, 도리어 남편이 뇌진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 여자는 어쨌거나 살인을 한 살인자이다. 이 여자를 변호 하는 것이 ‘악’ 이라고 볼 수 있는가?

Q) 몰카 처리에 관한 법을 더 강화 시킬 수는 없는 것 인가?

A) 법은 예외없이 적용시킨다. 예외를 두기 위해서는 너무 법이 강력해선 안된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한 법을 매우 강화 시킨다면, 앞서 말한 남편으로부터 죽기 직전까지 맞아 의식이 없는 여자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치료 받고 의식이 돌아오자 마자 사형 당해야만 한다. 왜냐면, 법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인가?

이런 개인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무조건 법을 강화 시키는 데는 명백히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잘못된것이다.

Q) 이번 건과 관련해서 실제 예를 들수있는가?

A) 개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의사가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마케팅용 사진이 필요해 환자들 시술 사진을 찍기로한다.

환자들이 상의가 탈의 된 채로 엎드려서 쑥, 뜸을 시술 받는 장면을 찍고(얼굴 안나옴, 등만 나옴,가슴 등이 나오진 않음)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하였다.

의사는 뜸을 놓거나 침을 놓거나 부황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간호 조무사들이 그것들을 촬영했는데, 한마디로 사전에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사와 간호 조무사 간의 불화가 생기자, 간호 조무사는 앙심을 품고 해당 사진은 “촬영 당시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 을 주장하며 의사를 고소하였고 사후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구두로만 이루어짐) 해당 환자를 설득하여 거짓 주장을 관철하였고 (물론 이는 의사 주장이므로 100% 믿기는 힘듭니다) “동의 하지 않고 촬영했다” 가 결국 인정되어 의사는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찍으라고 사주를 했으니까.)

법이 강화된다면? 의사는 판결까지 1년이고 몇 개월이고 구속되어 감옥에 있어야 하는게 되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았으니까 화장실에서 비동의 카메라를 600건 찍은 가해자와 같은 감옥에서 지내는게 당연한가? 또 뉴스에서 길거리 화면을 촬영하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있는 여성이 찍힌다면 해당 여성이 피해를 주장하며 방송사를 고소 할 수도 있는 것 이 된다. 어느경우엔 되고 어느경우엔 안된다 같은 예외조항을 계속 만들수도 없는 것 이고 특정 상황에만 적용한다!는 조항들을 계속 만들 수도 없다.

/\* 메모 원본 \*/

적발하는게 우선 중요하다

위치정보 기록을 꺼려하는 이용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돈이 되기 때문에 찍는다. /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

수요가 없어야 공급자가 없다.

사이트를 적발을 해서 차단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취향이 변태인 사람은 강력한 처벌이나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

우리가 하는 고민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고민이다.

업주들이 가입하게 만드는 하나의 업주들을 위한 플랫폼.

여자들이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 오히려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수있다.

몰카가 많은지역이니까 피해야지. 저쪽엔 안가야지. 조사해야지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여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프로세스이다.

실제 공공장소 몰카는 발견을 하거나 피해자가 되 본적은 없기 때문에 공포감은 크지 않다.  
(경험했다면 다를것이고 공공장소 몰카는 본인이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

술자리에서 GHB 에 대한 공포감. 원나잇, 클럽 등

**리벤지 포르노가 비율이 더 높다. 그게 더 큰 문제이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지인범죄 (조직적인 범죄이다. 유통. 소비)**

사회적인 명예 실추, 수치심

피해에서도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공유 할까봐 헤어지자고 말 못하는 것

피해자가 약자가 되는 상황. 합의해주게 되는 상황

신고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

의사선생님은 너무 억울해 법을 너무 강화하는것도 한계가 있어!!

무릎만 엄청 찍은사람도 있다. .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기간동안 또 범죄를 저지른다.

약간 정신병. 성 도착증

* 정신병적 문제가 있다면 사후 치료를 생각해보는건 어때??
* 치료감호제도. 형벌처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제도.
* 여름 휴가지에 . 급증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으면 범죄이기 때문에)

모텔 어플에 추가 서비스. 추가 기능을 같이 제공해서. 마케팅을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이용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해줘야해.

어플은 소비를 유발하는건데. 어플 만든 니들이 뭔데 왜 교육시키려고하느냐?

소비자가 갑이다.

근데 일반인 남자 모두를 대상으로 의식 제고(提高) 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일반인 남자가 모두 몰카를 촬영하는게 아니다? 근데 왜 남자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가.

남자들 모두를 교육시키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카메라 (소비의 관점에서 의식 제고는 필요하다)

노트북 렌즈를 가리거나, 조금 안일하게. 내가 피해자가 될까?

연령에 따라 공감대가 다를수있다.!!! 몰카가 무서워서 화장실 가는건 없다.

40대 50대는 몰카 같은거 고려 안한다.

다른 여성들은 남자친구와 관계나 모텔에서 상황을 걱정한다.

20 대 여성들은 각자의 공동체에서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며 실제 심각성보다 크게 느끼게 된거 아닐까.?

긴가민가 하지만 크게 신경은 안쓴다.

여자 화장실 가보면 휴지로 구멍이란 구멍을 다 막아둔다.

화장실에 중요 부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카메라가 있을 수 있다.

조사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

수익성을 더 연결시킬 수 있는것도 고려해야한다.

클린 모텔 인증은 어떤가?

지속 가능한 어플을 위해서 수익 모델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수익을 위해 이런걸 만들었다는 인식을 준다면 절대 안된다 .

수익성,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 화해 .체험단. 같이 마케팅의 수단. !!

자연스러운 수익구조를 만들어라. “얘들 이거 돈벌려고 만들었네.” 생각드는순간 어플은 끝이다